

4. 搨本の眞僞

* 原刻本

原碑 즉 처음에 세운비를 직접 手搨한 搨本。

* 重刻本

原碑가 어떤 이유에선지 망실되어 원각본을 이용하여 다시 세운 비를 搨本한 것

* 翻刻本

原碑가 현존하나 마모가 심하여 원모습을 잃었을 때 원搨본을 이용하여 다시 세운 비를 搨本한 것。

* 僞刻本

文獻上으로 존재하는 비를 다시 세워 이를 搨本한 것。

이천칠년 가을에

玄影齋에서 醉石 쓰다。

4) 답본지 비면에 붙이기(上紙)——상부에서부터 답본지를 펴, 물을 이용하여 평붓으로 붙이기. 이 때 공기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5) 답본지 두드리기(接紙)——옷솔 등으로 비면의 요철부분이 드러나게 가볍게 두드린다.

6) 답본지 습기 조절(涼紙)——답본지의 습기가 30%정도 말라 종이색이 흰빛을 띠기 시작 할 때가 가목의 최적시.

7) 가목(上墨)——먹손 두 개를 가지고 한 개에 먹물을 묻힌 다음 다른한개로 서로 비벼가며 먹의 농담을 조절한다. 먹손 한 개로 위에서부터 가목한다.

8) 떼내어 말리기(揭取)——답본지를 비면에서 떼어 낼 때 습기로 답본지가 약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문지를 깔고 답본지를 말린다.

9) 간수하기

10) 비 주위 정리

3. 被搨物の種類

1) 金文——청동제기, 동경, 철비 등

2) 石鼓

3) 刻石

4) 碑碣——方碑 圓碣、豐碑 短碣、

5) 磨崖

6) 造像

7) 墓誌

8) 石經

9) 浮圖

10) 기타——封泥、權量、磚、甲骨 등

찰답본은 비면에 답본지를 물을 사용하여 부착 시키고 솔로 두드려 요철부분이 드러나게 한다. 답본지의 습기가 적당히 마른 후 먹손에 먹물을 적당히 묻혀 위에서 밑으로 가볍게 내리 문지르면 먹색이 고르게 묻는다. 습기가 쉽게 마르므로 이 방법을 쓰면 빠른 시간 안에 가목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중국에서 시작 한 것으로 馬子雲의 「中國碑帖가이드」에 의하면 毛氈을 둥글게 말아 먹물을 적당히 묻혀 비면의 답본지에 가볍게 문질러 加墨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이 전래되어 世宗實錄 1)에 의하면 찰답본의 사례가 보인다. 世宗이 寺社의 碑碣搨本을 수집하기 위해 蠟墨과 氈을 백성에게서 건어들이며 民弊가 심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氈은 중국에서 毛氈帽子를 수입하여 방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답본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선조 이전의 답본물은 거의가 찰답본으로 되어 있다.

찰답본은 현재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서도 전래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西安 碑林에서도 찰답본이 끊어져 박답본으로 하고 있다. 박답본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슷하고 중국은 답본방법과 답본도구가 상당히 다르다.

찰답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답본지의 습도와 먹손 사용의 일이다. 습도는 계절 따라 다르고 오후가 다르며 날씨와도 관계가 깊어 세심한 주의가 요한다. 먹손으로 문지를 때 답본지가 습기로 弱해져 있어 가볍게 입혀야 한다. 비면이 크고 풍비일 때 짧은 시간에 가목 할 수 있어 답본지가 마르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다.

2. 답본 순서

- 1) 답본기구 준비——답본지(화선지, 한지)、평뿔、옷솔、먹물、먹사발、물통、먹손 2개、신문지、분무기.
- 2) 비면 청소.
- 3) 답본지 마름(折紙)——비면 크기에 맞게 마름.

1) 世宗實錄(卷96、24年5月丙戌28日)賜各道碑文于大小臣僚初上欲印各道寺社碑銘以爲書法命各道摹印以進各道造長濶紙割微聚丁夫又斂蠟墨與氈經年模印民弊甚多而卒爲無用及其頒賜一人或得十餘杖以至內奴膳夫亦皆濫受時慶尙民爲之語曰民間氈冠胎盤無遺

2. 搨本의 方法

(탑본지 부착 방법)

1) 乾搨

비면에 탑본지를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石花墨으로 고르게 문질러 탑본한다。

2) 濕搨

① 直接搨

魚搨、版畫、木板刻 등 피탑물에 직접 먹물을 칠하고 탑본지를 얹어 탑본하는 것을 말한다。

② 間接搨

비면에 탑본지를 붙이고 습기를 조절한 후에 먹손으로 먹물을 조정하여 탑본하는 것을 말한다。

(탑본지에 먹을 입히는 방법)

1) 撲搨法

한국、중국、일본에서 최근 사용하는 방법으로 탑본지를 붙이고 가목할 때 먹손에 먹물을 문혀 비면에 수직으로 가볍게 내려 두드려 먹색을 입히는 방법이다。이 때 습기가 많거나 먹손에 먹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두드린 흔적이 얼룩져 탑본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2) 擦搨法

현존하는 최고의 탑본은 唐搨本인 溫泉銘과 化度寺碑의 탑본이다。唐搨、宋搨、明搨 그리고 清末에 이르는 古搨本들은 모두 擦搨本으로 되어 있다。

3) 隔麻搨

주로 거친 비면이나 마애각을 탐본할 때 먹손을 거친 마포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큰 글자나 표면이 거친 자획이 잘 나타나나

4) 刻影搨

쌍구법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문자의 윤곽을 그리고 외부를 먹칠하는 방법이다. 광개토대왕비의 초기 탐본중이 방법으로 탐본한 예가 있다.

5) 朱搨

탐본할 때 먹 대신 주먹을 사용하여 상서로운 모양을 나타내었다. 비를 세우고 처음 탐본할 때 주로 사용한 것 같다.

6) 色搨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화용 안료로 詩碑나 소품을 탐본할 때 쓴다.

7) 陽搨

紺色이 짙은 종이를 사용하여 白색이나 金물로 탐본하는 것이다.

8) 魚搨

주로 낚시한 어류를 탐본할 때 간접 탐본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색탐을 겸하는 것이 보통이다.

搨本小考

비문을 박아내는 용어 중 拓本이란 용어는 中國과 日本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拓本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들과 구별하여 『搨本』(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도 타당하다.

중국에서 탐본의 시작을 唐代부터 본다. 그 때 법첩을 만드는데 비문탐본을 영인할 때 원본을 밝은 창에 붙이고 그 위에 영인지를 대고 細筆로 윤곽을 그리고 진한 먹으로 자획을 만드는데 이것을 響搨本이라 하였다. 搨本이란 용어를 이때부터 사용하였으나 비문을 직접 영인하는 뜻으로는 쓰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搨』자가 『비문 박을 탐』 자이에 拓本이란 용어보다 더 타당하다 하겠다.

1. 搨本の 종류

* 濕搨

비에 탐본지를 부착할 때 물을 사용하여 붙이고 그 위에 먹을 입히는 채탐 방법이다.

1) 烏金搨

탐본의 먹색이 윤기나는 가마귀 검은 깃털색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금탐은 먹색이 짙은 검정색의 최고의 탐본으로 비면이 고르게 평평할 때 가능하다. 탐본지도 최상의 지질로 된 최상급 화선지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탐본이 보편화 되지 않아 탐본지를 별도로 생산하지 않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정밀한 탐본이기에 중국의 明法帖은 모두 오금탐으로 된 탐본으로 만들어져 있다.

2) 蟬翼搨

탐본의 먹색이 옅은 매미 날개같이 투명감이 있고 진하지 않다. 담묵을 사용하며 자획의 세미한 부분도 잘 표현된다. 이 탐본은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근래 우리나라의 모든 탐본이 일본식을 따라 선의탐을 주로 하고 있다.